“불가능에 맞서는게 도전…누구나 할 수 있다”

2017 희망을 쏜다
5 장애인들과 로체 원정 김홍빈대장

손가락 잃었어도 산사랑 그대로
산의 가르침 어디서도 못배워
청년들 무엇이든 부딪쳐 보라

지난해 6월 파키스탄 낭가파르밧(8125m)에 도전한 김홍빈 대장이 해발 4200m의 디아미르 베이스캠프에서 설원을 배경으로 성공적인 등반을 다짐하고 있다. 〈김홍빈 대장 제공〉

세계 최초로 장애의 몸으로 7대륙 최고봉 등정에 성공한 김홍빈(53) 대장이 또 한편의 희망을 쏘아올리러 히말라야로 떠난다.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으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을 꿈꾸는 김 대장은 오는 3월 상이군경 출신 나정희씨, 왼쪽 팔이 없는 이진기씨, 몸 왼쪽이 마비된 정영웅씨와 함께 세계 4위 고봉 로체(8516m) 공략에 나선다.

“모든 조건이 갖춰진 도전은 우리는 더 이상 도전으로 부르지 않는다. 불가능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저의 또 다른 도전이고 저와 같이 오르는 동료의 숙명이다”

원정 성공을 다짐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김 대장은 9일 이번 도전에 대해 이렇게 각오를 밝혔다.

히말라야 8000m급 9개 봉우리 등정에 성공한 ‘산악인’ 김 대장에게는 로체 등반이 10개 봉우리 등정이라는 도전이지만, ‘장애인’ 김홍빈에게는 장애를 가진 이세상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다.

26년 전 전도유망했던 산악인 김 대장은 북미 최고봉인 매킨리봉을 단독 등반하다 사고를 당해 열 손가락을 잃었다. 바닥에 주저앉은 것도 잠시, 손가락 없는 손을 꽉 쥐고 그는 다시 산에 올랐다. 이도 악물었다. 부상 이후 그는 1997~2009년 세계 7대륙 최고봉 완등, 2006년 가셔브룸 Ⅱ(8035m) 등정, 2006년 시샤팡마(8027m) 등정, 2007년 에베레스트(8848m) 등정, 2008년 마칼루(8463m) 등정에 성공했다. 이어 2009년 다울라기리(8167m), 2011년 초오유(8201m), 2012년 K2(8611m), 2013년 칸첸중가(8586m), 2014년 마나슬루(8163m) 등정에도 성공했다.

그의 등반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에게는 매 순간이 극한의 도전이었고 동료 산악인과 그를 아는 시민들에게는 한 편의 희망찬 드라마였다.

산에서 손가락 열개를 전부 잃었지만 산이 원망스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만약 26년 전 그날 다치지 않았다면, 더 많이, 더 무모하게 산에 올랐을 것이고 아마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며 밝게 웃었다.

그는 주변에서 산을 오르다 부상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내 동료가 몸을 상한 것이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부상을 입고 장애를 갖게 되면 그 누구도 ‘산에 가자’, ‘다시 히말라야를 오르자’고 손을 내미는 이가 없다는 게 마음 아프다는 것이다.

김 대장이 5년 전부터 이번 도전을 준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원정대가 오를 로체는 티베트어로 남쪽의 봉우리라는 뜻으로 김 대장은 지난 2015년 4월 네팔을 강타한 지진의 여파로 등정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희망 나눔 2017, 로체 원정대’는 ‘이번 도전을 기필코 성공해 주변에 희망 바이러스를 선사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하다.

지체장애 2급이기도 한 김 대장은 장애인들과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다들 잘 할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주위에서 찾아줘야 하고 본인이 노력해야 한다.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다. 도움을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부딪쳐라. 꼭 이 말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

오늘의 날씨

해뜸 07:41 해짐 17:39 달뜸 15:38 달짐 04:55

기온 뚝 강추위 시작

기온이 큰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맑은뒤흐림	-2/7	보 성	맑은뒤흐림	-2/6
목 포	맑은뒤흐림	1/6	순 천	맑은뒤흐림	0/7
여 수	맑은뒤흐림	0/6	영 광	맑은뒤흐림	-2/5
나 주	맑은뒤흐림	-3/6	진 도	맑은뒤흐림	2/6
완 도	맑은뒤흐림	2/7	전 주	맑은뒤흐림	-3/10
구 례	맑은뒤흐림	-2/6	군 산	맑은뒤흐림	-4/10
강 진	맑은뒤흐림	0/6	남 원	맑은뒤흐림	-5/10
해 남	맑은뒤흐림	1/6	흑산도	맑은뒤흐림	0/6
장 성	맑은뒤흐림	-3/6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2.0	북서~북	1.0~2.5
	먼바다	서~북서	1.5~2.5	북서~북	1.5~3.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먼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먼바다(서)	북서~북	1.5~2.5	북서~북	1.0~2.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5:08	12:26
	17:57	--:--
여수	00:51	07:31
	13:36	19:42

◇ 생활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높음
체감온도	관심

◇ 주간 날씨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3/4	-1/7	-1/5	-2/3	-3/3	-3/5	-4/6

중학교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확대
중·고 검정 역사교과서 심사기준 강화

교육부 새해 업무보고

정부가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한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도록 법령을 정비키로 하는가 하면,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안도 오는 7월 발표된다.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저출산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혁신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2015년 자유학기제에 대한 운영 성과가 긍정적이라는 데 주목, 올해 3월부터 400개의 연구·시범학교를 선정해 일반학기에도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유학기제가 내년에는 ‘자유학년제’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도 진행키로 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의 한 학기 동안 교과 시간을 줄이는 대신 학생들이 예술·체육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반고 중심으로 운영했던 ‘진로교육 집중학기제’를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대학 입학 정원 16만명을 줄이기 위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관련, 2주기 평가를 위한 기본계획을 올 3월까지 마련하고 대학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방안도 담았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2021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안’을 올 7월께 발표하겠다고 밝혀 교육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내년 3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고등학생이 문·이과의 구분 없이 국어·수학·영어·통합사회·통합과학·한국사·과학탐구실험 등 7개 과목을 ‘공통과목’으로 공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가상·증강현실을 도입한 실감형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를 1200개교까지 확대하는 한편, 20년 내 모든 학교에 내진보강 및 석면 샌드위치 판넬을 제거하고 1401억원을 투입, 연내 우레탄 트랙 교체를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을 앞두고 새로 개발될 검정교과서의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으면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검정을 가장한 국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낭암학원, 금품 제공 채용교사 임용 취소

6명 기간제 교사 대체키로

학교법인 낭암학원이 교직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비리에 연루된 교사 6명의 임용을 취소했다.

낭암학원은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채용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교사 6명에 대한 임용 취소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1명), 2013년 3월(2명), 2014년 3월(3명)에 동아여중·고에 채용된 교사들이다. ‘임용취소’는 임용 자체를 무효화하는 조치로 임용 이후 해당 교사들의 경력, 자격 이수 등이 무효화될 수 있다.

이들 교사들은 검찰 수사 결과, 낭암학원 측에 채용을 대가로 4000만~1억50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낭암학원측은 방학 이후 학생들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과목에 대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낭암학원은 앞서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A 전 법인사무과장과 금품을 주고 채용된 직원에 대한 파면을 의결한 바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화아파트 무너진 옹벽 복구 마무리

2년 전 지반 침하로 무너져내린 광주시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 옹벽 복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남구는 9일 대화아파트 옹벽 복구가 이르면 10일께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복구한 옹벽은 철근을 따라 흙 속으로 시멘트를 채워 넣어 경사면을 고정하는 ‘소일 네일’(Soil Nail) 공법을 적용했다. 복구 공사에는 국비 15억원 등 30억원이 투입됐다.

대화아파트 옹벽은 2015년 2월 5일 높이 20m·길이 188m에 이르는 전체규모 중 아파트 뒤편 주차장 쪽 30m가량이 무너졌다. 입주민 305세대 357명이 인근 경로당과 초등학교로 긴급 대피했고, 사고 현장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세대는 인근 중학교에 마련된 임시시설로 거처를 옮겼다.

신속한 초동대처로 인명피해는 막았지만, 토사가 차량 30대, 오토바이 8대 등을 덮쳐 3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남구는 주민 대표·변호사·구의원·교수·공무원 등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조사에 착수, 재해보상금 명목으로 편성한 구 예비비를 투입해 피해액을 전액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고려수지침을 연구하시면 평생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통 서금요법·고려수지침 강좌

정통 수지침은 고려수지침으로 1975년에 유태우 박사가 처음으로 개발 창시하였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고려수지침은 현재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서금요법이란 수지침 외의 서암뜸, 기마크봉, 서암온열뜸기, 아큐빔, 금봉 등을 말합니다. 고려수지침 · 서금요법은 한의약이 아니고 한국의 새로운 의학입니다.
(고려수지침 강좌는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중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정, 단체의 평생 건강관리에 필요하고 질병을 속히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부작용, 후유증, 위험이 없습니다.

고려수지침 · 서금요법은 자원봉사에 좋으며 외국 이민, 귀농, 농어촌 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우측의 책자를 구입하시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고, 월간 서금요법을 발송해 드립니다.

유태우 원저 / 4×6배판 / 508면 / 정가 60,000원
유태우 원저 / 4×6배판 / 367면 / 정가 53,000원
특가 48,000원

(주)고려수지침 ■문의처 : (02)2231-3000 ■통신구입처 : (02)2233-0841~2
■인터넷 쇼핑몰 www.seokeumshop.com (고려수지침학회중앙회를 검색하세요.)
■광주지회 062)224-5343 ■전남지회 062)525-0001 ■광주동부지회 062)227-3407 ■광주북부지회 062)512-2170
■광주남부지회 062)673-8492 ■광주광산지회 062)956-2237 ※타 지방에서는 전국의 160여 지회를 이용 바랍니다.